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36p, 중고선가치수 127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36p(+2p, WoW), 중고선가치수는 127p(+2p, WoW)를 기록하며 전주대비 상승함. 지난 주 현대중공업이 KSS해운으로부터 86,000CBM급 VLGC 2척을 수주했고 인도기한은 2023년 1분기까지라고 보도됨. (Clarksons)

Teekay LNG Partners hints at Qatar's savvy on LNG newbuilding price

Qatar Gas는 Qatar Petroleum을 대신해서 한국과 중국 조선소에 예약해둔 LNG선 151척의 건조슬롯을 선주들에게 배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중이라고 알려짐. 한국과 중국 4개 조선사에 예약해 둔 LNG선 가격은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현재까지 입찰 참가 서류를 받은 선주는 37개사로 알려짐. (TradeWinds)

Capesize bulker spot rates fall amid rising commodity prices

Capesize벌크선의 스팟 운임이 철광석 및 강재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하락했다고 보도됨. The capesize 5TC(weighted average of spot rates on 5 Key routes)는 일주일간 -16.8% 하락했다고 보도됨. 관계자들은 지난 5월 5일 기준 하루 44,817달러까지 치솟았던 Capesize벌크선 운임의 일시조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영국, 조선 르네상스에 14억달러 필요

영국 해사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업체인 Maritime UK가 정부가 약속한 10억파운드(14억달러)를 조선 르네상스를 위해 투자라고 촉구함. Maritime UK가 발표한 성명의 핵심 내용은 영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선박을 영국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영국 조선소들의 안정적인 일감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점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열연강판 · 후판도 t당 100만원 넘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항 기준(CFR) 철광석 현물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t당 208.7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선박을 제조할 때 필요한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지난달 말 시중에서 11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됨. 후판 가격이 100만원을 돌파한 것은 2011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보도됨. (한국경제)

LIG넥스원, 1,600억원 규모 '해상감시레이더-II 양산사업' 수주

LIG넥스원은 '해상감시레이더-II 양산사업' 등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6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 수주했다고 14일 공시함. 계약금액은 1,639억원이며, 계약기간은 이월부터 2026년 9월30일까지라고 보도됨. LIG넥스원은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힘. (뉴스1)